

코스피지수가 3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며 1,430대로 올라서자 증시가 대세 상승국면에 재진입했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2·4분기 1,500선을 돌파한 뒤 연말까지 1,600선까지 정복할 가능성이 크며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정보기술(IT)과 건설·조선·증권 등을 유망주로 제시했다.

코스피 1,430대 ... 재미들의 투자 전략

“IT·건설·증권·조선주 주목해야”

올 연말 1,650선 돌파 ‘장밋빛 전망’

포스코·현대건설·LG·GS 등 유망

“사상최고가 돌파 이후 국내의 유동성이 다시 풍부해지면 2·4분기에 1,550선에 도달한 뒤 올해 말까지 1,65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위원도 “선진국 금리인상 조치에도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다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환매했던 국내 주식자금도 재차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지환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국내 경제와 미국 경제가 각각 5%대, 3%대 성장을 이어갈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이익도 작년 대비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별적인 강세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작년처럼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무차별적 강세장이 펼쳐지기보다는 실적호전이 기대되는 업종과 자산가치 재평가 종목이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선별적인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업황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기술(IT)과 건설, 증권, 조선주와 자산가치가 돋보이는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종목, 인수합병(M&A)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홍기석 삼성증권 증권조사파트장은 “실적호전주와 자산가치 우량기업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건설·조선·지주사 등을 유망업종으로 제시했다. 유망종목으로는 대구은행, 현대해상, 한진중공업, 현대산업, SK, LG, 대한항공 등을 꼽았다. 현대증권도 지수 상승에 따라 업황개선이 기대되는 증

권을 비롯해 조선·자동차부품주를 유망업종으로 꼽으면서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대우조선해양, 성우하이텍 등을 유망주로 추천했다. 대우증권도 업황흐름이 좋은 조선·기계·건설·증권·인터넷을 유망업종으로, POSCO, 현대건설, LG, GS, 삼성물산, 금호산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을 유망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IT와 건설·주권을 유망업종으로 꼽으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증권, LG생명과학 등을 유망주로 추천했다. 한화증권은 IT와 주권을 유망업종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증권을 선호주로 꼽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성장률 5.3%

KDI 전망, 하반기엔 둔화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올해 하반기 중 경기가 고점에 도달한 뒤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순환사이클상 내려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5.3%로 상황조정=KDI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5.0%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았다.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6.2%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돼 이를 감안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4.2%에서 4.8%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6.9%

에서 8.4%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1.1%에서 1.6%로 각각 수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1.5%포인트나 높였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부진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다소 확대되는 수준에 그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의 건설성 성장세를 바탕으로 12%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상품수입(물량기준)은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원·달러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작년(6.1%)보다 크게 상승한 1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배제 못해=KDI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황조정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4분기 6.2%, 2·4분기 5.8%, 3·4분기 5.1%, 4·4분기 4.4%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KDI는 최근의 소비증가를 확대가 2003~2004년 거품붕괴로 과도하게 위축됐던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유가불안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기상승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의 경우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달려 있으나 이들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17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7 30 32 33 34	15
등 위	
1등	6개 숫자 일치 2,314,663,080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222,148
3등	5개 숫자 일치 1,256,604
4등	4개 숫자 일치 50,305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오이솔루션	생선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9	062-602-7653
☞HRN	[SKT인원상사] 남여 판매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19	062-529-2671
☞빅마트	매장관리 정규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9	062-650-2203
전남대학교 재료강도연구소	[기계시스템공학부] 석·박사급 연구원	대원졸/경력무관	3,000~3,200	04/20	062-530-1668
연결리얼	정규직 편집디자인(MAC사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2-228-7777
모이건설	[신입]일반사무직/사무보조, 문서작성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20	062-520-0133
광동정밀	패수처리시설 운영/2교대근무/금형부/생산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955-9474
금문상사	기술영업/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955-0107
대한타이어공업	무역사무원	대졸/경력1년	2,000~2,200	04/23	011-629-5205
햇볕	의류소품류 MD 및 상품등록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24	062-375-5998
☞진덕종합건설	종합건설업 공무 및 경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4	062-361-6501
디자인연	인테리어 cad 및 3d 경리자	초대졸/경력3년	1,200~1,400	04/24	062-361-992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스마트오븐으로 만든 쿠키

삼성전자가 최근 서울 유니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연 스마트오븐 런칭행사에 참석한 온라인 요리, 기전 커뮤니티 회원들이 스마트오븐을 이용해 만든 쿠키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레저용 차량 도난율 1위

중국·동남아 등 밀수출 가능성

보험개발원 발표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값도 비싼 레저용차량(RV)의 도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등 서해안 지역에서 차량 도난율이 높아 상당수가 중국이나 몽골·동남아 등으로 밀수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개발원은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자기차량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가운데 2천324건의 도난사고가 발생해 손해보험사들이 25억2천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난건수와 지급 보험금은 전년보다 각각 5.9%, 3.7% 감소했지만 건당 평균 보험금은 1천79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차량 모델별 도난건수는 뉴퍼터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쉐렌토(129건), 스타렉스(90건), 뉴렉스턴(80건), 카니발II(51건), 예쿠스(49건) 등의 순이었다. 도난건수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쉐렌토·스타렉스·뉴렉스턴·카니발II·렉스턴·싼타페 등 RV형이 6개나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규모는 쉐렌토가 28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뉴렉스턴(23억6천600만원), 예쿠스(14억9천500만원),

렉스턴(8억8천만원), 스타렉스(8억2천200만원), 카니발II(6억5천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차량 보유대수 대비 도난발생 지수(전국 평균 100 기준)는 광주(245.8)·대전(221)·경기(143.9)·전북(138.8)·충남(119.6)·인천(100.3) 등의 순으로 항구와 가까운 서해안 지역에서 도난율이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차량도난을 막기 위해 이모바일러져(차 열쇠와 차체 무선교신을 통해 정상적인 열쇠로 확인한 다음 시동이 걸리는 장치), 스티어링휠 잠금장치(차 열쇠를 꽂아만 운전할 수 있는 장치),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등의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주차할 때 동독을 완전히 말소하고 중고차 구입 때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보험사고 이력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난차량 구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차, 2008년 중국내 판매 2위 목표

현대차가 중국내 자동차 판매를 현재 4위에서 오는 2008년에는 2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베이징현대차는 내년까지 베이징기차와 베이징시 일대에 50대50 비율로 출자한 100만 평 규모의 중국 제2공장(연산 30만대)을 오는 18일 착공,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내 생산규모가 현재 연산 30만대에서 2008년 60만대로 늘어나 제1기차-폴크스바겐의 66만대에 이어 상하이GM과 함께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말부터 중국 현지생산에 시작한 베이징현대차는 2003년 5만2천128대를 팔아 시장점유율 순위 13위를 기록했지만 2004년 판매량이 14만4천90대로 3배 정도 늘어 5위로 경증 뛰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23만3천668대를 판매, 광주우후(23만768대)를 제치고 상하이GM(32만대), 상하이-폴크스바겐(25만대), 제1기차-폴크스바겐(24만대)에 이어 4위로 한단계 올라갔다. /연합뉴스

‘알박기’ 줄어들 듯

건교부, 하반기부터 규제 강화

보양원이 상승과 주택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년전으로 강화돼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자의 땅 일부를 매입한 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뚝종’의 하나 수용’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두 법안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통합 또는 단일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는 대로 일정(대략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전에 대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제외대상은 고시일 7년전 토지소유자로 정했다. 현행규정은 고시일 3년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계획만 미리 입수해 3년전에만 땅을 사면 사업시행자에게 고의로 비싸게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의 안은 정 의원의 개정안보다 매도청구 대상 제외 조항을 강화, 10년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두 방안중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한 5년내에 땅을 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나 조합에게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면서 “알박기를 노리는 정보력을 동원한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둘째 아이 출산할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

정부, 저소득층에 2주간 서비스

앞으로 저소득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2주간 무료 제공하며 쌍둥이일 경우 3주간으로 서비스 기간이 1주일 더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 산후관리를 해준다. 이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출산 뒤 60일 이내의 특정 시기를 정해 출산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참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가 파견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의 출산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상의해 주변사람을 도우미로 쓸 수 있다. 도우미는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모집, 파견하며 사전에 산후조리 지원 및 각종 질병에 대한 감염관리 등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우미 지원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성이며 2주간 서비스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물수요 작년 16.2% 증가

자급률은 15% 아래로 하락

경제성장과 함께 광물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자급률이 매년 하락해 지난해 처음 15%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산업자원부의 ‘2005년 광산물 수급현황’에 따르면 국내 광물수요는 지난해 8조7천548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6.2% 늘었고 2000년에 비해선 96.2%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광물생산은 지난해 1조1천663억원에 그칠 정도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광물 자급률은 13.3%에 그쳤다. 국내 광물자급률은 90년대에 30%를 넘었으나 2000년에 19.3%를 기록, 20% 아래로 떨어진 뒤 2004년에 16.5%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 15%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국내 수요의 81.9%를 차지하는 철광과 동광 등 금속광물의 경우 국내 생산이 극히 적어 자급률은 2004년에 0.79%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0.72%로 떨어졌다. 석회석·고령토 등 비금속광물의 자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70.3%로 전년 74.6%보다 하락했다. 이같이 낮은 자급률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커지는데 광물 국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광물수입액(석탄류와 금 제외)은 2004년 44억5천6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1억2천100만달러로 37.4%나 증가했다. 이중 철광수입은 물량이 4천346만t으로 2004년보다 1.7%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19억2천800만달러로 40%나 늘었다. /연합뉴스